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35호 【무게 제 25178호】 주체 105 (2016)년 2월 4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제 1 비서 이신경 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연합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명도 따라 뜻깊은 새해의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과 사상도 슬겅도 발걸음도 함께 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힘차게 열어 나가고 있다.

온 나라가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대비약, 대책신을 일으키고 있는 력사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연합회의 확대회의가 2월 2일과 3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제 1 비서 이신경 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연합회의 확대회의를 지도 하시었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 조선인민군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위원회, 성들과 지방의 당책임 일군들, 무력기관 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 하였다.

회의에서는 우리 당력사에 새로운 리정표를 아로새기게 될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맞으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심도있게 토의



백두산대국의 강성번영도 있다는 무척한 신념을 간직하고 일편단심 당중앙을 굳게 믿고 따르며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었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당중앙의 명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혁명적규율과 질서를 확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 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 화가전면에 나서고있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당대령을 더욱 든든히 꾸리며 우리 혁명대오를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오직 그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는 불패의 전투대오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데 적극 기여할것이라고 말하였다.

1970년대 당의 기초 축성시기 일군들처럼 높은 혁명적열정과 사업의욕을 가지고 당의 명도를 총직하게 맡들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우리 당의 인덕정치, 광복정치를 받들어 어머니의 심정으로 인민들의 운명과 생활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줌으로써 인민들이 있는 그 어디에서나 로동당만세 소리, 사회주의만세 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되고 당안에 남아있는 특권과 특세, 세도와 판로주의가 집중적으로 비판되었으며 이를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제시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회의에 앞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의 리의를 옹호하고 일심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당력사에서 처음으로 당중앙위원회와 인민군당위원회 연합회의 확대회의를 소집한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개회를 선언하시었다.

회의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내외반혁명세력의 책동을 짓부시며 세인을 놀래우는 민족사적인 사변들과 경이적인 성과들로 충만된 오늘의 현실은 선군조선의 불패의 상징이고 모든 승리와 기적의 원천인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당 제 7차대회를 앞두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의 든든한 도약

대가 마련된 중대한 시기에 열린 이번 회의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을 선군혁명의 강위력한 정치적참모부, 인민대중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를 반석같이 다지는 데서 력사적인 사변으로 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을 명도하시기에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이 빛을 뿌리고

2 편 으 로 계 속



조선로동당 제 1 비 서 이 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연합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1 번 에 서 계 속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치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는 우리 당의 인민관을 철저히
구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승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위해 열사복무하는것은 우리 당의
역사가 보여주는 일심단결강화의 근본원
천이라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합회의
확대회의에서 역사적인 결론을 하시
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회의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당정치
사업과 당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

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당,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
겨나가는 강위혁한 항도적력량이라고
하시면서 장장 수십성상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여왔
으며 사소한 오류나 우여곡절도 없이 승리
만을 이룩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이번 회의가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고 당중앙의 두리
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는데서 중요
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며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었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운다는것은
사회적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
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오직 당의 령도밑에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고 하시었다.

3 번 으 로 계 속



조선로동당 제 1 비서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연합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2 면 에서 계속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과 행동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은 혁명발전에서 나서는 기본원칙이며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러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는데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와 당의 유일적령군체계를 세우는것은 현시기 중대한 문제로 나선다고 강조하시였다.

세기를 이어온 반미전면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오늘의 장엄하고 보람찬 투쟁은 우리 당과 군대를 철두철미 수령의 당, 수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며 천만군민이 병도와 사상과 뜻도 같이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이 땅, 이

하늘아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모두를 혁명열, 투쟁열로 심장을 불태우는 사상과 신념의 거인으로 준비시킬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뼈와 살로 만들고 결사관철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당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마르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사업하고 생활하며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사소한 요소와도 날카롭게 투쟁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군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심화시킬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전군에 최고사령관의 명령일화에 하나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군풍을 세우고 당의 명령, 지시를 최단기간내에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는 오직 최고사령관이 가리키는 한방향으로만 나아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당, 전군이 우리의 일심단결을 파괴하고 썩먹는 세도와 판로주의를 철저히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에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세도와 판로주의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근기있게 밀고나가 그 근원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조직사상생활에 누구나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속에서 당성단편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당, 전군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을 튼튼히 꾸려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당일군, 정치일군대렬을 잘 꾸릴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밝힌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아갈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야 하며 혁명가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자신밖에 없다는것을 자각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여기에서 인민군대가 앞장설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분수령으로 되는 당 제7차대회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모두가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뜻깊은 올해의 총진군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영예로운 승리가 될데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진행되는 우리 혁명의 앞길에 시련과 난관이 겹잡일수록 우리의 혁명신념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며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헌신분투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우리 인민에게 안겨줄 승리의 월계관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두다 총출력, 총매진해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빛내어나가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은 크나큰 격정에 넘쳐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연합회의 확대회의는 주체혁명위업의 중대한 역사적시기의 요구에 맞게 수행, 당, 군대와 인민의 불멸의 통일단결을 철옹같이 다지며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실현해나가는데서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가 높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를 높이 받들고 전당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억세게 전진해나가는 백두산대국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장편서사시

태 양 의 하 늘

(전운에서 계속)

9

기쁨의 10월, 환희의 10월! 우리의 태양 또다시 하늘길에 오르시다

살림집전설을 드디어 풀었다고 2천여리밖에서 보내온 승리의 보고 눈시울 젖게 하는 기쁨의 보고 (해빛은, 해빛이 나의 병사들이 끝내 이룩해냈거든!)

한시바빠 가보시고싶시다 선경의 새 마을을 경축의 일흔흔을 사들 앓던 때 할 일은 많다 갈 것도 많다 그러나 수제민입사는 국사중의 국사, 경사중의 경사이거나

마음이 앞서 날오는 그의 하늘길 기둥아래 유유히 산과 들이 흘러 지나라 불수유 유정향 도시와 마을들도

시름가신 그의 마음처럼 폐향한 하늘엔 이따금 곤태곤태 목화꽃같이 부풀은 구름송아들

하늘길도 언제나 그의 집무실이었건만 현일인지 풀없는 잠상에 잠겨드시는 마음

인간이 태를 묻은 이 행성에선 누구나 하늘아래 살거나 그리고도 높아높아 그리고도 넓어넓어 하늘은 인간의 마음을 절명한 절제의 신이 된것이었는가

신야와 강하를 뒤집어엮은 무시무시한 파괴력 그 다양무쌍한 원로와 변덕으로 하늘은 인간의 마음을 거머쥐려 굴복시키려 하는것인가

그러나 인간은? 만물의 평정-인간은 자연보다 위대하다 인간의 신념-그것은 하늘보다 위대하다

보라 하늘이 들쭉은 관음속에서 인민은 신념의 장사들로 솟구쳐 올랐고 피해물 가시는 치열한 전투에서 나의 병사들은

겉사편질의 무사들로 일떠서지 않았는가

아, 하늘도 이기는 신념을 지닌 우리 인민, 우리 병사들은 들도 없는 나의 신, 나의 하늘 자연의 하늘은 무너질 때 있어도 나의 이 하늘은 무너지지 않으리라 이 하늘의 믿음이면 지기도 쳐들리라!

라선땅은 수도 먼 조국의 북변 하도 뵈고말아서

하늘길, 태양, 평길로 오신 그의 그이에선 앞장서 걸으시리라 새 마을 봉우리가 시작되는 곳에서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는데 우리 걸어서 갑시다! 걸어가면서 때 집에 다 들려보고 싶소

스무날전만 해도 북부전선이란 곳 오늘날은 새집들이 앞문 선경마을로 돌아온 곳 병사들의 피와 땀 스민 낮과 밤

그이이는 자욱자욱 안아보고싶으시리라 인민들의 울음소리가 웃음소리로 뒤바뀐 곳

최가 북으로 뒤바뀐 기적의 고향마을에서 시작될 새 희망의 패일들을 그이이는 절음절음 걸어보고싶으시리라

어느 집에 들리시어선 수도꼭지를 틀어보시고 불이 잘 드는가 질어도 보시고 새집이 분해 집들보다 무엇이 더 좋은가

이따금씩 열고 들여다보시며 그이이는 자랑히도 물어보신다 또 어느 집에 들리시어선 보내주신 텔레비전이 잘 나오는가

물고기와 솜우이며 내며며 부엌시간이며 식료품, 위생용이며 청담에 이르기 까지 다 받아안은 수제민들이

눈물을 동이로 흘렀다는 이야기엔 답을 어찌로 받고 사는 인민들을 당에서 돌비죽은 용담한 일이라 그이이는 심상히도 대답해주시다

부엌에 들어서시어선 알뜰하고 알뜰한 북방녀인들의 손길에

웃길한대 우우가 날 가마뚜껑도 그이이는 뭉소 쳐들어보시고

달마루가 눌지 않는지 가볍게 밟을 걸리도 보시며 부엌마루가 원래 설계엔 없었던것이나

이 지방 너인들의 오랜 판승이길때 그렇게 됐노라는 보고엔 인민들이 좋다면 좋은것이라 그이이는 《도장》도 꼭 눌러주시다

새 거러, 새 마을이 여기저기 일떠서 기쁘다, 기쁘다 해도 이렇게 기쁜 날 있어본적 없어 보람, 보람 하여도 이렇게 기쁜 보람 없었던것이었...

우리가 이렇게 기쁘는데 새집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야 얼마나 더 기쁘겠소 이한테 바로 전화위복이요 전화위복!

풀없이 이렇게만 걸고싶으시리라 인민의 기쁨을 안아보며 사투 즐겨 하시어

터밭이며 파입나무에 배수로며 울며까지 집기에 새워놓은 마당까지 하나하나 그이이는 눈여겨보시리라

-새집을 지어주면서 마당비와 땀까지 마련해주시는게 이제는 인민군대의 전통이 되었소 자기 집을 꾸리는 심정이 아니던 도처히 할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 인민군대 아니면 생각조차 못할 일 우리 병사들 아니면 누구도 못해낼 일 세상에 대고 자랑하고싶으시리라 병사들 한사람한사람

통방 안아주고 업어주고싶으신 마음 -작품 한달만에 완공이라 정답 장애, 우리 병사들이

시미길하던 사람들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게 됐소 -경애하는 원수님

이곳에 오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백화통의 1,300세대 살림집 구역을

구경하게 해달라고 한답니다 -그때? 좋은 일이고 다 보여주라고 하시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일인데... 요양하신 웃음소피 10월의 하늘가에 기발을 날리는듯

그이 가슴에서 노래소리가 울려나 울다 -병사들이 모두 모이시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오? 그이에선 정제제 땅콩하시리라 -최고사령관이 왔다가

병사들을 만나지 않고 가면 되겠소? 자기들이 지은 새집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어줍니다!

그 어찌 파지만을 갈래줄것이라 그것은 그이와 함께 갈 때일

그것은 그이와 이룩할 승리 그것은 그이와 맞이할 빛나는 모든 영광!

백화통앞에서 다시 죽어 버렸다 그이들의 죽이, 걱정, 걱정...

우우를 호호하시는 우리 태양 별무리 거리고 사진을 찍으신다

그이결에 서서는 우우에 올라산듯 행성도 받아내 끌어내는 병사들

심하며 응실거리며 가까이 더 가까이 그이 무리에 풍치어 한명어리 될 순간

하공중에 떠올라라 삼치의 바가지 전화위복의 기적이 창조된 곳에서

사건현세의 기적이 창조되는 순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쁘는데 새집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야

얼마나 더 기쁘겠소 이한테 바로 전화위복이요 전화위복! 풀없이 이렇게만 걸고싶으시리라

인민의 기쁨을 안아보며 사투 즐겨 하시어 터밭이며 파입나무에 배수로며 울며까지

집기에 새워놓은 마당까지 하나하나 그이이는 눈여겨보시리라

이, 이 땅의 무수한 기적의 창조자 그이는 우리 갈 눈부신 미래의 설계가 우리 삶 아름다운 학원의 건설주!

원수님을 모시고 4명이 맨즈인에 바다 사진속에 얼굴이 일렁거릿가

적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래알같이 점으로 남는데도

실사 가리워 보이지 않는데도 이 《태양》속에 내가 있다는 그것이면 누구나 행복찾아 짓는것

거대한 인력에 자석처럼 끌려드는 매력과 호모의 최절정 이 혼연일체는

인간제의 가장 위대한 기적! 활영가는 경건히 호흡을 멈추어

영광의 이 순간은 불과 한초! 기념회비와 사진은

병사들에게 차려질 영광의 한초를 위해 병사들을 기다려준

최고사령관의 1시간 30분을 인민은 전설로 전해가리라

사랑하는 북부전선의 병사들을 찾아 오실 때엔 일본일초도 새로우시어

절음을 재촉하시던 그이 가실 때엔 떠나가실 때엔

마치도 한가로우신듯 여유로우신듯 점심까지 전신신체 기다려주시었

음 -우우를 호호하시는 우리 태양 별무리 거리고 사진을 찍으신다

그이결에 서서는 우우에 올라산듯 행성도 받아내 끌어내는 병사들

심하며 응실거리며 가까이 더 가까이 그이 무리에 풍치어 한명어리 될 순간

하공중에 떠올라라 삼치의 바가지 전화위복의 기적이 창조된 곳에서

사건현세의 기적이 창조되는 순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쁘는데 새집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야 얼마나 더 기쁘겠소

이한테 바로 전화위복이요 전화위복! 풀없이 이렇게만 걸고싶으시리라

인민의 기쁨을 안아보며 사투 즐겨 하시어 터밭이며 파입나무에 배수로며 울며까지

집기에 새워놓은 마당까지 하나하나 그이이는 눈여겨보시리라

이, 이 땅의 무수한 기적의 창조자 그이는 우리 갈 눈부신 미래의 설계가 우리 삶 아름다운 학원의 건설주!

원수님을 모시고 4명이 맨즈인에 바다 사진속에 얼굴이 일렁거릿가

적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래알같이 점으로 남는데도 실사 가리워 보이지 않는데도

이 《태양》속에 내가 있다는 그것이면 누구나 행복찾아 짓는것

거대한 인력에 자석처럼 끌려드는 매력과 호모의 최절정 이 혼연일체는

인간제의 가장 위대한 기적! 활영가는 경건히 호흡을 멈추어 영광의 이 순간은

행연 못할 난관이 앞을 막아나실 때 애도

인민의 지지는 승리의 신심을 얻겨 주었다

당장전 일흔흔을 경축한 중앙 대총장부결에 70년을 펴치어

사람들을 기쁨에 살리게 하던 승리의 대공연도 막을 내리고

파라기술전당의 천관한 불빛에 미래과학자거리의 웅진회합에

우리 지하전통차가 대어났던 소식에 흥분으로 잠 못 들던 거러거러 장문

불도 눈감고 끝나라애 잠겨든 한밤 그이에선 한강한강 번져가게시어라

멀리멀리 북변에서 날아온 편지를 만류송이이라 이쪽저쪽 새 마을서 보

내은 자치구구 눈물레 젖어있는 편지를 새집에서 지고 쟈

10월 10일 명절날 원수님 보내주신 업무삼천리비 뱃

알로 아침밥을 지어놓고 푸르반에 앉았 건만

은 식구 목이 때려 밟을 줄지 못했다고 2천여 리 고생길 다녀가시는

원수님께 점심전지도 못 올린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 모두 울었노라고...

힘한 명 높은 고개 너무도 많아 팔자시 시집보낸 부모도 못 온 길을

다운은 스무날새 푸르반이나 오겠 다고 부모형제 일가친척 피말은 살살이

정도 원수님 손길보다 뒤전에 있었다고 추위지도 전에 원수님 보내주신

사람의 송풍복을 제철에 꺼내 입으며 자율일에 선재 정신없이 울었노라고...

당보에 난 사진에 제 얼굴도 나왔다고 백학등을 떠나시는 원수님의 뺨스

할때 앞장에 달려가 선장 데어달렸건만 그리고 뵈고싶던 원수님모습은

눈물레 다 가리우고말았다고 그리고도 드리고싶던 인사말씀 한마

디는 지책에서도 붙내 드리지 못했다노라고... 정실껏 한자한자

만 도와 편지쓰며 눈물이 흥건했을 그 허많은 얼굴

들울 젖어드는 마음에 그려보고계시는네 여기 또 있리라

제대군관아버지마라 사리원서 신문물적인

평양시 멀기도 먼 곳에 왔다고 해선지 그제 씩어 울었다는 녀인

새집에 들어 알게 된 뜨거운 그 사연 5월의 그날 원수님이 내 집에 오셨

했다고 버린듯도 아니 뱃 곳에 생를 들어서 시어

내 집은 평양에서 제일 가까우다고 뜨락에 밟자주소리만 들려도 장문

열어본다고... 집집마다 사연도 저마를 가지가지

아궁에 쫓붙을 지퍼던 날 말수머구없던 남편 잔소리 그리 많

더라고 원수님 새집에 보내주신 성냥

황비를 달고 꼭 한가치만 쓰라고 인겨주신 사랑의 불씨, 부의 불씨

함애 정히 남겨서 대를 불멸한다고 아들, 손자, 증손자 대를 불러이겨

세간나면 쫓붙을 그 성냥으로 피우게 하리라 한가치 한가치 세어모며 울었던 애기

하어평의 내년도 편지 보내어왔으리 수해를 입었어도

풍낭도 구질도 해본적 없었다고 멀리도 평에도 받아본적 없었다고

피난민의 실음과는 결코 인연없었 다고 소년단체 회합까지의 편지

아버지 어머니를 일찍이 여고 할머니까지 문골에 또 있었다는 남

학생 병원침대우에서 보내온 편지 사나운 물살에 휘말려

기진하여 물밑에 가라앉던 순간 원수님의 모습이 보여왔어

소년단체 회합에서 나온 향배 보내 주시던

원수님의 못 잊을 축복의 미소가 살아서 그 은혜에 보답하리라

살아서 기어이 원수님 다시 뵈오리라 마지막 불부림으로 추겨주셨을요

마지막함을 다쳐 헤엄쳐 갔어! 원수님의 사랑이 새살이 되고

원수님의 사랑이 피가 되어 흘러들

었어요 세상머년 할머니도 끈질 드리리라

아, 진정한 원수님은 나의 아버지! 혈혈단신 홀로 남은 내 머리맡을 지켜

났나 담이나 떠날줄 모른 그 많은 사람들아 모두 나의 가족

이라 졸업하면 군복입고 이 끈임을 지키러

나어던 불사신이 다지고다진 맹세 아, 한없이 소중하시리라

글썽물레 비끼던 소박한 그 진정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스스럼없이 속삭이고 믿기에 있어도 좋은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변심모르는 인민의 마음이 구월구월 어찌어찌

원수님의 말지위가 어려웠는 내 짐 (고아원하 인민이여

마르고 발붙고 지켜주는 이 마음들을 황금에 비길수 있을것인가

백옥같은 인민의 이 일편단심은 황금을 주고도 살수 없거니

아, 하늘이 있어 해도 달도 별도 있다

인민이 있어 이 집정은 있고 이 집정은 인민을 위해 있다!

인민! 뜨거운 불씨보시는 그이 눈앞에

떠올라라 인제든지 가슴 적시주는 모습

어디 가나 어디서나 떠나는 순간이면 옷자락에 감기며 매어달리며

발목을 붙드는 인민 울며 단내부르며 달려오는 모습

천리라도 만리라도 따르려 하나의 모습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인민의 그

모습엔 꿈에도 그리운 수명님들 모습이 비껴어있어

인민을 만날 때면 수명님들 피는듯 눈물겨울고

하늘처럼 인민을 모시고픈 그이 마음 (수명님들 그이도 사랑하시던

인민 수명님들 주신 사랑 잊지 못하는 인민

기러리, 이 인민을 품어주고 이 인민의 나라 조선을 이끌고

문명대로 가리라! 부흥으로 가리라!)

온몸에 솟구치는 뜨거운 새싹 쏟아내는 열정에 먹자오르신 그이

그이에선 활짝 장문을 여시여라 그이 바라보시는 제 멀리 하늘에서

해가 솟아오르다 새날의 태양이 (아, 장엄하다 붉은 새!

온몸 불타며 우주에 빛을 뿌려주고 오늘날도 너는 머물렀구나

대지의 모든 생명들에 빛과 열을 주려 전함없는 정열로 온몸을 불태우며...

오늘도 날이 개일것이다 인민이여, 활짝 웃오라

그대 위해 이 몸 찢고라 마지마라 그대의 열정에 구름처럼 끼이지 않게

하리라 인민! 나의 사랑, 나의 행복, 나의 전부를

인민이여 가장 아름다운 부활을 그대에게 안겨

주리라 오늘날 내 무슨 일을 더 할것인가

그대 위해 매일은 무엇을 펼칠것인가

(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중국정부 조선반도문제특별대표일행 경모의 정 표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조선의 미래는 밝을것이다

주조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과학기술전당 참관

지식인들에게 국가학위학직 수여

대학 강좌장 최영희에게 후보인 사정회가 수여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부학부장 신

인민의 봉사자 된 높은 자자과 철신

신권려관 지출인 파봉옥동무를 비롯 한 종업원들 (제급교양사업을 얼마나 중시

그들이 그 어디에 가서도 미래와 제급직업무에 대한 분노와

